

한국문학에 나타난 모험의 의미

임성래*

1. 머리말
2. 이계 여행 형식의 모험담
 - 1) 모험
 - 2) 이계
 - 3) 모험의 의미
3. 신화적 형식의 모험담
 - 1) 주인공
 - 2) 대적자
 - 3) 이계
 - 4) 모험의 특징
4. 맺음말

국문요약

한국문학에서 모험은 매우 오래된 문학의 소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가 <오구풀이>나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 같은 작품뿐만 아니라 <최치원 설화>처럼 매우 오래된 작품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신이담 형식의 설화들 가운데 몇 작품이 조선시대에 와서 소설화되었다.

<오구풀이>나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김원전>을 관류하는 주인공의 모험은 이계의 탐험과 대적자와의 대결로 요약된다. 그런데 주인공의 모험의 결말은 대체적으로 행복한 결말의 추구였다. 예를 들어 바리데기는 무조신이 되고, 박생은 염왕이 되며, 한생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산으로 은둔하고, 김원은 공주와 용녀와 혼인하고 형주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백일승천한다.

그런데 <오구풀이>와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의 결말과 <김원전>의 결말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곧 앞의 세 작품의 결말은 현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에 비해 <김원전>의 결말은 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문과 교수

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복 추구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한국문학에 등장하는 모험이라는 소재도 행복한 결말이라는 한국문학의 관습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 서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전과 대중화 이후의 작품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문학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독자들의 욕구를 모험 서사가 어떻게 수용했느냐의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로 해석된다.(주제어 : 모험, 이계 여행, 오구풀이,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김원진)

1. 머리말

오늘 우리의 주제는 ‘여행과 모험의 서사’이다. ‘여행’과 ‘모험’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여행과 모험은 모두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둘은 여행과정에서 마주치는 위험의 정도와 그 여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획득하는 성과물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을 같은 범주에 넣어서 논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내게 주어진 발표 주제가 “대중문학에 나타난 모험의 의미”이다.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중문학에 나타난 모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대중문학 작품 가운데 어느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문학에 나타난 모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이 두 문제 모두 필자의 능력 부족 때문에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주지하듯이 대중문학에 나타난 모험을 이야기하려면 그 대상이 될 만한 작품을 우리 문학 작품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알고 있는 작품의 대부분은 외국문학 작품이거나 무협소설류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최근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판타지 작품들 가운데도 이런 류의 작품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는 이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이를 논의

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 게다가 필자의 전공이 고전문학인 까닭에 국문학 분야에서 모험을 다룬 문학 작품을 찾는 일, 특히 대중문학 작품에서 이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모험을 그린 작품을 몇 편 찾을 수 있으나 이들이 대중문학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발표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필자는 오늘 발표에서 대중문학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필자의 전공 영역과 관련된 고전문학 작품 가운데 모험을 소재로 한 작품 몇 편을 중심으로 이 주제, 곧 모험의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사실 모험이란 단어만큼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도 드물다. 특히 모험을 문학과 연결지어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경우에 그 개념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간행된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학비평 용어사전 가운데 모험이란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사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만 보더라도 이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국어사전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 정도로 모험이란 단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서 모험이 위험과 관련이 있는 단어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모험이란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기는 미흡한 것 같다.

문학 작품 가운데 모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흔히 모험담 또는 모험문학이라고 한다. 이 모험문학은 그 내용이나 소재, 형식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장르 면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모험문학을 주인공이 장애와 위험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성하여 보상을 받는 이야기라고¹⁾ 하면서 ‘감정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남성 서사물’로 규정하고, 그 첫 작품으로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

1) Cawelti John,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39-40쪽.

소>를 꼽고 있어서²⁾ 오늘 논의에서 참고할 만하다. 서양의 모험문학은 디포 이후 스티븐슨의 <보물섬>을 거쳐 다양한 내용의 작품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제임스 본드 같은 스파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부터 톰 소여 같은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까지 현실의 토대 위에 모험이 진행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쥘 베른느 같은 작가의 이계 여행을 다룬 과학소설 작품도 있고, <타잔>과 같은 영화나 SF영화 등에도 이런 모험문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의 등장 이후 당시의 모험문학은 쥘 베른느의 작품들에서 보듯이 변형된 여행기가 상당 기간 유행했던 듯하다. 그렇지만 원래 모험담은 영웅이 위험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여 그 보상을 받는 이야기인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사물이다.³⁾ 그러므로 모험문학이란 이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모험문학도 대체로 이 양자, 곧 여행 과정에서 겪는 모험을 소재로 한 여행기 형식의 작품들과 신화적 형식의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가 <오구풀이>와 김시습의 <금오신화> 가운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등은 주인공이 자연의 보편적 지배를 받지 않는 이계의 공간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사건을 줄거리로 한 작품들이다. 무가 <오구풀이>의 주인공 바리데기는 저승이라는 이계 여행을 통해 부친을 살릴 불사약물을 구하고, <남염부주지>의 박생은 꿈에 염부주라는 지옥에 가서 그곳을 구경하고 염라대왕을 만나 왕위를 물려받으며, <용궁부연록>의 한생은 꿈에 용궁에 가서 상량문을 지어주고, 용궁을 구경하고 보배를 선물로 받고 돌아온다. 그런가 하면 요괴에게 납치된 공주를 주인공이 구출하는 과정을 그린 신화적 형식의 작품들도 있는데, <김원전>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모험문

2) “Adventure Literature”, 1쪽.

3)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45쪽.

학을 이계 여행과 관련된 서사물과 신화적 형식의 서사물로 나누어 살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 이계 여행 형식의 작품으로는 무가 <오구풀이>와 김시습의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을, 신화적 형식의 작품으로는 <김원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2. 이계 여행 형식의 모험담

1) 모험

(1) <오구풀이>

우리 문학에서 모험을 소재로 한 초기 서사물로 추정되는 <오구풀이>는 주인공 바리데기가 이계여행을 통해서 불사약물을 구해 죽은 부친을 살리고 자신은 무조신이 된 이야기이다. 그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주인공 바리데기는 일곱째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는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 죽어가는 부친을 살리기 위해 저승에 가서 불사약물을 구해오라는 부탁을 받는다. 처음에 이 요청을 거절했던 바리데기는 마음을 돌려 자신을 낳아준 부친을 살리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 이계 여행을 떠난다. 그녀는 병든 부친을 살릴 수 있는 불사약물을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가는 도중에 세 명의 신을 만난다. 바리데기가 저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통과해야 하고, 그들은 그곳을 통과하는 대가를 요구한다. 곧 그녀의 모험의 목적은 저승에 가서 부친을 살릴 불사약물을 구해오는 일이었고, 세 명의 신들은 그 과제의 성취 대가로 그녀의 몸으로 산 값, 길 값, 물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그녀는 처녀인 자신의 몸을 그곳을 지키는 세 신들에게 바치고, 이들 셋을 낳은 후에야 불사약물을 구할 수 있었다.

바리데기는 자신의 처녀성을 대가로 주고 구한 불사약물로 죽은 부친을 살리는 공을 세운다. 그리고 결국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조신(巫祖神)이 되는 보상을 받는다. 또한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선관과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서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낳은 세 아들이 각각 벼슬을 받는다.⁴⁾ 이런 점에서 <오구풀이>의 주인공 바리데기의 모험은 자신의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귀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2)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

김시습의 <금오신화> 가운데 <남염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은 주인공이 꿈을 꾸는 것으로 이계여행을 시작하고, 꿈을 깨는 것으로 이계여행이 끝나는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주인공이 여행하는 이계가 <남염부주지>에서는 박생이 염라국을, <용궁부연록>에서는 한생이 용궁을 구경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남염부주지>는 박생이 꿈에 염부주를 여행해서 염라대왕을 만나 문답을 나누고 염부주를 구경한 후에 돌아왔다가 죽어 염라대왕이 되는 이야기이다. 그가 겪은 모험의 내용은 꿈에 남염부주에 가서 염왕과 대화를 나누고 그곳을 구경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인물(주공, 공자, 석사), 귀신, 도, 왕, 제사, 윤리, 치국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염왕은 박생의 지혜를 보고 왕위를 물려주는 선위문을 작성해서 주었다. 서생이 그 글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수레가 넘어져 놀라 깨니 꿈이었다.

<용궁부연록>은 한생이란 선비가 꿈에 용궁에 가서 자신의 문장 실력을 발휘해서 가회각의 상량문을 지어주고, 그곳의 여러 인물과 교류하고, 시를 짓고 칭찬받는 내용과 돌아올 때 야광주와 비단을 보상으로 받

4) 이본에 따라 아들의 숫자가 다르다. 어떤 이본에는 아들 일곱을 낳고, 그 아들 일곱이 북두칠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오는 이야기이다. 꿈에서 깨었으나 그의 옆에는 꿈속에서 받은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 후에는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는 생각을 두지 않고 명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핀 <남염부주지>처럼, 이 작품의 한생이 겪은 모험도 비교적 간단하다. 곧 용왕이 보낸 사자를 따라 용궁에 가서 상량문을 짓고, 또 화답시를 지은 다음 용궁을 구경한 것이 모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학생이나 한생 모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으나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꿈속의 모험을 통해 염왕이나 용왕에게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든 점에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2) 이계

(1) <오구풀이>

<오구풀이>에서 바리데기가 방문한 이계는 그녀가 불사약물을 찾아가는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이계의 모습이 산신이 사는 세상, 길신이 사는 세상, 용신이 사는 저승 세계 등으로 매우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만 불사약물이 있는 곳은 용신이 사는 용궁, 곧 사해 용왕이 사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피살이꽃, 살살이꽃, 숨살이꽃 등이 만발하고, 온갖 과일이 열리며, 평소에 먹는 물이 불사약물인 곳으로 좀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구풀이>에 등장하는 이계는 산신이 사는 곳을 지나고 길신이 사는 곳을 지나서 용신이 사는 곳까지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바리데기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저승은 사해 용왕이 사는 바다 속 세상, 곧 용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곳에는 죽은 사람의 멈춘 피를 살리는 꽃과 죽은 살을 살리는 꽃, 멈춘 숨을 살리는 꽃이 만발하고 온갖 과일이 열리며, 그곳에서 마시는 물은 모두 불사약물인 세상으로 묘사된다. 일반적으로 무속 행사에서 지

화(紙花)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이런 무속의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속학에서 물은 재생의 생생력을 지닌 존재로 상징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무속의 저승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런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남염부주지>

주인공 박생은 꿈에 바닷가의 한 섬에 이르렀다. 그곳은 초목이 나지 않고 모래와 자갈도 없었다.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뿐이었다. 낮에는 쉼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 땅덩이가 녹아버리는 듯했고, 밤이면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 사람의 뼈끝을 에이는 듯해서 견딜 수 없었다. 성처럼 된 쇠벼랑은 바닷가를 둘러싸고 늘어서 있고, 굳게 잠긴 쇠문이 하나 덩그렇게 서 있었다. 수문줄은 사람을 물어뜯을 것 같은 자세로 창과 쇠몽둥이를 쥐고 성을 지키고 있었으며 성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쇠로 지은 집에 살고 있었다. 낮에는 피부가 불에 데어 문드러지고 밤에는 추워서 몸이 얼어붙곤 했다. 사람들은 다만 아침 저녁에나 약간 기동하며 웃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다지 괴로워하지도 않았다.⁵⁾

바라보니 세 겹으로 된 철성이 있고 높다란 궁궐이 금으로 된 산 밑에서 있는데, 뜨거운 불꽃이 하늘까지 닿도록 이글이글 타올랐다. 길가를 돌아보니, 사람들은 불꽃 속에서 녹아버린 구리와 쇠를 마치 진흙 밟듯이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박생 앞으로 뻗은 몇 십 걸음쯤 되는 길은 숫돌과 같이 평탄했으며, 쇠를 녹이는 뜨거운 불은 없었다.⁶⁾

서울에 이르니 사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언뜻가에 있는 누각은 한결같이 인간 세계의 것과 같았다. 마중 나온 두 여인을 따라 들어가니, 국왕은 머리에 통천관을 쓰고 허리에 문옥대를 띠고 손에 규를 잡고 뜰 아래 내려와서 맞이했다. 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은 백옥 난간에 놓인 금으로 된 자리였다. 차는 구리를 녹인 액체이고 과실은 쇠로 만든 경단이었다. 시자가 다과를 앞에 올려놓으니, 향기 나는 차와 맛있는 과실로 인해서 향기가 온 궁궐에 진동했다.⁷⁾

5) 이재호(역주), 『금오신화』, 과학사, 1980, 84쪽.

6) 이재호(역주), 『금오신화』, 과학사, 1980, 86쪽.

7) 이재호(역주), 『금오신화』, 과학사, 1980, 86-87쪽.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남염부주란 곳은 초목이 나지 않고 구리와 쇠로 이루어진 세상이며 낮에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밤이면 무척 춥고 쇠로 된 절벽이 바다에 면해 있는 일종의 감옥으로 묘사된다. 그곳 백성은 고통스러운 곳에 살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곳을 다스리는 염왕은 세상의 왕과 같은 차림을 하고 있으며, 그곳의 과일과 차는 쇠경단과 구리를 녹인 액체였는데, 맛이 좋고 향기가 강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곳 서울의 모습은 마치 세상과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 묘사된 이계는 앞부분은 인간의 세상과는 매우 다른 세계이고, 염왕과 그가 사는 서울은 세상의 모습과 유사하다. 다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과일과 차는 쇠로 만든 경단과 구리를 녹인 액체였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그것들이 맛있고, 매우 향기로웠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계의 모습은 매우 기이해서 인간의 세상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시습의 지옥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당시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이계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용궁부연록>

한생은 박연(朴淵)의 용왕이 보낸 사자를 따라 준마를 타고 공중을 날아서 용궁에 이른다. 그가 용궁에 도착하니, 문지기들이 방계, 새우, 자라의 갑옷을 입고 늘어서 있었고, 궁문의 현판은 함인지문(含仁之門)이라 쓰여 있었다. 용왕은 절운관(切雲冠)을 쓰고 칼을 차고 손에 활(笏)을 쥐고 있었다. 수정궁 안에 있는 백옥 곁상에 서생이 앉고, 용왕은 철보로 만든 교의에 앉았다. 한생은 상량문을 지은 후에 여러 용왕들과 신들을 만난다. 미인들이 춤을 추고 객개사가 팔풍무를 추고, 현선생이 재주를 보이고 노래했으며, 숲속의 도깨비와 산속의 괴물들이 일어나서 각기 그 기능을 자랑했다.

한생은 용궁을 구경한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져서 산과 바위벼랑도 없어지고 다만 넓은 세계가 바둑판처럼 된 것이 수십 리나 되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그 안에 벌여 심겨 있고, 바닥엔 금모래로 퍼져 있고 돌레는 금성으로 쌓아졌으며, 그 행랑과 뜰에는 모두 푸른 유리벽들을 펴고 깔아서 광채와 그림자가 서로

비치었다.

용왕이 두 사자에게 명하여 서생을 인도하여 관람시켰다. 서생은 여러 누각을 구경했는데, 조원지루에 오르니, 이 누각은 전체가 파려(玻璃)로 만들어졌고, 구슬과 옥으로 장식하고 누르고 푸른 빛으로 아로새겼는데, 그 위에 오르니 마치 허공에 오른 것 같았으며, 그 층계는 열 층계나 되었다. 능허각에는 번개를 맡은 전모의 거울, 우레를 맡은 뇌공의 북,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비를 맡은 물독 등이 있었다. 또한 칠보를 간수한 창고 등도 있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용궁은 어별과 용왕이 사는 곳으로 묘사된다. 그곳의 풍경은 수중세계지만 하늘과 산과 들이 있고, 꽃과 나무, 금모래가 있는 등 화려하지만 지상세계와 유사한 곳으로 설명된다. 다만 한생이 구경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용궁의 모습은 세상의 번개와 뇌성, 바람, 비를 관장하는 기물들이 있고, 또 보물을 간직한 창고가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는 자연현상을 용왕의 조화로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오구풀이>나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에 등장하는 이계는 그 모습이 약간씩 다르다. <오구풀이>의 이계인 용궁과 <용궁부연록>의 용궁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오구풀이>의 용궁이 죽은 부친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용궁부연록>은 자연현상의 민간적 속설을 확인하는 맥락의 용궁으로 묘사된다. 이에 비해 <남염부주지>는 상상적 지옥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위에 등장하는 이계의 모습은 부분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습을 화려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고, 당시인들의 이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독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세계로 설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모험의 의미

<오구풀이>의 이계 여행에는 불사약물을 구해 부친을 살리겠다는 주인공의 뚜렷한 모험의 목적이 있었다. 소위 과업이 주어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모험의 길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모험의 완수를 통해 죽은 부친을 살린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오구풀이>에 등장하는 이계의 모습이다. 곧 그곳에 핀 꽃들이 피를 살리고, 살을 살리고, 숨을 살리는 꽃들이고, 불사약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숨을 쉬고 피가 돌며 살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므로 불사약물과 그곳에 핀 꽃들은 바리데기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료들이다. 이 말은 결국 이것들의 기능이 바리데기의 과업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바리데기의 모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바리데기가 찾아간 곳이 이 세상이 아닌 저승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데기가 돌아와 죽은 부친을 살린 후에 부친이 제안한 현세의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무신(巫神)이 된 점이다. 곧 바리데기의 모험은 현실의 공간이 아닌 이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녀가 원한 보상도 현실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고 죽은 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신이 되는 것이었다. <오구풀이>가 망자의 저승 천도를 위한 무속제의에서 가창된다는 점에서 바리데기의 모험의 의미는 죽은 자의 저승 천도라는 기능적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남염부주지>의 박생이나 <용궁부연록>의 한생은 자기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우연히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염왕과 용왕이 보낸 사자를 따라가서 염부주와 용궁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험도 매우 수동적이다. 곧 박생은 염왕과 세상의 종교와 인물, 치국, 제의, 윤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그 동안 궁금했던 점을 염왕에게 묻고, 그 답을 듣는 것이 그

의 모험의 내용이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염왕과 문답한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려 황당한 일들을 모조리 없애는 것이었다.⁸⁾ <용궁부연록>의 한생의 모험은 더욱 간단하다. 그는 용궁에 가서 용왕의 딸이 거처할 가회각의 상량문을 짓고, 잔치 중에 시를 한 편 짓고, 용왕과 그곳에 참석한 신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모험의 전부이다.

두 사람 모두 현실에 불만을 품었다가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계를 여행하고, 그 모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꿈을 깬 후에 그런 사실을 인식한 그들은 모두 현실의 부귀영화를 멀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의 모험은 당대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바리데기의 모험은 이계 탐험이었고, 모험의 결과로 망자의 저승천도 역할을 하는 무조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박생과 한생의 경우 우연히 이계를 여행하고, 그곳에서 염왕과 용왕을 만나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보상으로 박생은 염왕이 되고 한생은 보배인 아광주 두 개와 빙초라는 비단 두 필을 노자로 받는다.

그런데 세 작품의 주인공인 바리데기와 박생, 한생 모두 비현실의 세계인 이계를 탐험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일 뿐만 아니라 모험이 끝난 후에 모두들 현실에서 주어지는 부귀영화를 거부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이 현실에서의 행복보다 이계에서의 행복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모험을 통해 인생의 행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가졌고, 그 결과 인생의 행복이 현실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으며, 이들의 최종 행동은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

8) 이재호(역주), 『금오신화』, 과학사, 1980, 96쪽.

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의 현실인식에는 현실에서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조선 후기 상업주의적 소설의 세계관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곧 이들 작품의 결말 구조는 독자의 욕구를 작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 후기 상업주의 소설의 해피 엔딩이라는 기계적 결말 구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신화적 형식의 모험담

<김원전>은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를 소설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는 한 장수가 지하국에 사는 괴물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하기 위해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괴물을 죽이고 공주를 구출했으나 부하에게 배반당했다가 그곳을 탈출해서 부하들을 징벌하고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인데,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신이담(神異譚) 가운데 하나이다. 두 작품의 줄거리를 비교해 보면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의 한 장수가, <김원전>에서는 김원이 천상의 남두성이었는데, 천상에서 죄를 지어 수박 모양의 이물로 태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김원이 공주 외에 용녀와 결연하고, 마법의 연적 이야기와, 김원이 죽었다가 환생하는 이야기가 추가되는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곳이 일부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의 줄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설화의 소설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김원전>은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를 소설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여기

9) 김열규, “민담과 이조소설의 전기적 유형”,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84-99쪽 참조.

서는 김원의 모험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주인공

주인공 김원은 하늘이 내린 비범한 인물이었다. 그 비범성과 관련된 첫째 사연은 태몽과 관련되어 있다. 김원의 모친 유씨가 어느 날 선녀가 옥동자 하나를 데리고 내려와서 “칩등은 영소보전 시녀이온데 항아의 명을 받자와 선동을 부인께 의탁하고자 하여 왔사오니 귀히 길러 후사를 전하소서”라고¹⁰⁾ 하면서 동자를 안기고 간 꿈을 꾸었다. 주인공이 태어날 때에도 오색구름이 집안을 두르고 기이한 향내가 진동하더니, 문득 선녀 한 쌍이 내려와 해산을 돕고 “이 아기의 모양이 이러하오나 하늘이 정하신 일입니다. 조금도 다른 염려는 마시고 귀히 길러 천정을 어기지 마소서”라고¹¹⁾ 했다. 그리고 태어난 모양이 둥글고 걸은 검고 속은 빛이 어롱어롱한 것이 눈도 코도 없고 마치 수박 모양 같았다. 10년이 지났을 때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옥으로 만든 채찍으로 세 번 치며, “남두성아, 네 죄악이 다하였으매 옥황상제께서 나를 보내시어 네가 쓰고 있는 보자기를 벗기고 오라 하시매 내가 이곳에 와서 보자기를 벗기고 가노라”하자¹²⁾ 허물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곳에 천서 세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세 권의 책을 공부하니 모를 것이 없었다. 용천 철마산에서 창과 검, 활을 가지고 무예를 익히던 중에 구두(九頭) 괴물 아귀가 미인 셋을 등에 얹은 것을 보고 칼로 그 짐승의 머리를 쳤으나 칼이 박혀 빠지지 않았다. 창으로 찌르려 하자 짐승이 온갖 재주를 보이더니 서쪽으로 갔다. 그 짐승을 쫓아

10)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진/남윤진/당대중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93쪽.

11)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진/남윤진/당대중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95쪽.

12)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진/남윤진/당대중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01쪽.

가니 큰 바위에 구멍이 있는데,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부친에게 그가 겪은 이야기를 한다.

부친 앞에서 그가 “풍백을 부르니 문득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며 공중에서 신병과 정장이 무수히 내려와 검극이 서리 같고 살기가 충천하였다. 이윽고 천지가 명랑하며 원이 채운을 타고 공중에 앉아 몸을 변화하여 흑바람도 되며 흑 구름도 되어 변화가 무궁함”¹³⁾을 보여준다. 또한 상이 그를 보시니 신장이 9척이요 곰의 등에 이리의 허리요 잔나비의 팔이었다. 용모가 현양하고 심중에 천지조화를 품었으니 짐짓 영웅호걸이요 세상의 기남자였다.¹⁴⁾

또한 그는 하늘이 돕는 인물이었다. 그가 굴혈에 들어갔을 때 석함에 황금글씨로 “대명국 김원이 개탁하라”라고¹⁵⁾ 쓰여 있었고, 열어보니 자금 일월 용봉의 투구와 황사자 보신갑과 오척 보검과 천서 세 권이 있었다. 첫권은 위로는 천문에 통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피는 것으로 보는 즉시 시험하여 한 가지 어긴 바가 없고, 둘째 권은 천하 인명의 길고 짧음을 지척에 있는 사람을 헤듯이 자세하고, 셋째 권은 적진을 멀리서 바라보면 적진의 동정을 날날이 탐지하여 아뢰는 듯이 자세하고, 적장의 수명과 기치 병기와 군량의 다소를 알며, 남의 모략을 익히 보던 듯이 알 수 있었다. 또 책 사이에 흥미선이란 부채가 하나 있었는데, 외로 돌려 바로 치면 사람이 땅에 얼어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부치면 태산도 날리고, 비와 구름이 자욱하고 사해의 용왕과 오방의 신장이 무수히 내려와 명령을 듣고, 전쟁터에 나아가 부채를 높이 들어 적진을 향하여 부치면 만경창파라도

13)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진/남윤진/당대종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11쪽.

14)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진/남윤진/당대종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17쪽.

15)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진/남윤진/당대종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1쪽.

일시에 흠어지는 귀중한 보배였다.¹⁶⁾ 또한 그는 굴혈에서 작은 주먹 만한 수박으로 변신할¹⁷⁾ 정도로 변신술에도 능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김원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무예를 열심히 연마했고, 또한 하늘이 돕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2) 대적자

대적자 아귀는 머리가 아홉이나 달린 천하무적의 괴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고, 키가 15척이나 되고 빛은 오색이 영롱하였다. 그는 태항산 보신동에 살았는데, 자칭 구두장군이라 했다.¹⁸⁾

그의 대단한 능력은 공주 셋을 잡아기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아귀가 몸을 기울여 칼을 피하고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쉬니, 장수인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의 입으로 들어갔다. 입을 벌리며 숨을 내부니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황상과 만조백관이 숨결에 5리나 날려갔다.¹⁹⁾

철마산에서 김원과 싸우는 장면에서 그가 보인 재주는 대단했다. “나는 산 속에 있는 억만 년이나 된 아귀라 하는 짐승이라. 하늘의 궁전을 임의로 출입하고 사해의 용왕을 임의로 부리며, 육정육갑과 오방제귀와 이십팔수를 임의로 호령하며, 옥황상제도 나를 휘우지 못하고 만승천자도 나를 당하지 못하여 공주 세자매를 빼앗아 오거늘.²⁰⁾

입 하나를 벌리니 윗턱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아래턱은 땅에 닿았고, 또 한 입을 벌리니 번개 같은 불길이 들락날락하고, 또 한 입을 벌리니 천병만마가 진을 치고, 또 한 입을 벌리니 퍼런 물결이 산골짜기에 창일하고, 또 한 입을 벌리

16)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3쪽.

17)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9쪽.

18)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13쪽.

19)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13쪽.

20)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07-109쪽.

니 호랑이와 표범과 송냥이와 이리가 무수히 나오고, 또 한 입을 벌리니 운무가 천지에 자욱하고, 또 한 입을 벌리니 뇌성벽력이 천지를 진동하고, 또 한 입을 벌리니 시끄러운 소리가 낭자하더니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고, 마지막 입을 벌리니 거센 바람이 일어나며 집채 같은 바위가 날리니.²¹⁾

신음하는 소리가 우레 같고 아홉 입으로 숨쉬는 바람에 방문이 여단하니 철마산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이 놈이 흉악하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므로 신랑이 없어 음양을 몰랐다. 상하 여인을 도적하여 시녀를 삼아 좌우와 거처에 위풍만 보이려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여인이 삼천여 명이오 나졸이 수십만으로서 위엄이 제후의 나라보다 더하였다.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굿간에 준마 천여 필이 매여 있고, 동편 곳집에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 천하에 이름 없는 은근한 치국의 기틀이었다.²²⁾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아귀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또한 시녀와 나졸, 준마 천여 필과 금은보화를 무수히 쌓아둔 나라의 왕 같은 존재였다. 특이한 점은 신랑이 없어서 음양을 몰라 여자들을 도적하여 시녀로 삼았을 뿐 그들을 아내나 첩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공주와 김원의 결연을 성사시키기 위한 당대의 정절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장치로 보인다.

3) 이계

<김원전>에 등장하는 이계는 두 곳이다. 한 곳은 아귀가 사는 지하의 굴혈이고 다른 한 곳은 용왕이 사는 용궁이다. 이 두 곳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귀가 사는 지하세계의 모습을 소개한다.

21)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전/남윤진/당대중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09쪽.

22)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전/남윤진/당대중전/이화진/최랑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9쪽.

지혈을 향하여 며칠을 들어갔다. 한 곳에 다다르니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밝게 비치는데, 남쪽 구석에 돌문이 잠겼고 문 위 현판에 “대명 대사마 대원수 김원이 이 문을 열리라”라고 쓰여 있었다.²³⁾

큰 산이 있는데, 수목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온갖 꽃이 만발하였으며, 난새와 봉새와 공작새, 앵무새, 두견새가 쌍쌍이 왕래하였다. 점점 들어가니 완연한 큰 길이 있되, 좌우에 기이한 꽃과 풀이 줄줄이 덮여 있고 그 안에 큰 궁전이 있는데 금빛이 찬란하였다. 가까이 나아가 보니 이층 삼문이 있는데, 현판에 황금대자로 “천하제일강산(天下第一江山) 구두장군(九頭將軍) 대아문(大衙門)”이라 쓰여 있었다.²⁴⁾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쪽 마굿간에 준마 천여 필이 매여 있고, 동편 곳곳에 금은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²⁵⁾

두루 살펴보니 사면 곳곳에 보배가 즐비하였다. 모두 끌어내어 놓고 누각을 보니 삼사 층 별당이 샅샅이 있고 보패를 엮었으니, 산호 기둥이며 청석 마루와 유리벽이며 호박 주초에 백옥대를 세웠으며 용린 기와에 수정렴을 달았으니, 서기가 반공에 어리고 사치가 장려함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²⁶⁾

이곳은 비록 굴일지라도 천지 일월이 세상과 같으니.²⁷⁾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아귀가 사는 지하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인간세상보다는 훨씬 화려하고 보배가 많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 위에 현판이 달린 모습이라든지 산과 나무, 꽃이 만발한 모습이라든지, 온갖 새들이 왕래한다든지, 준마가 있다든지 하는 것 등은 인간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금은

23)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1쪽.

24)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5쪽.

25)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9쪽.

26)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35쪽.

27)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당태종전/이화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45쪽.

보화가 많이 쌓여있고, 산호 기둥과 청석 마루, 유리벽, 호박 주초, 백옥 대, 용린 기와, 수정렴 등으로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나 서기가 반공에 어리고 사치가 장려하다는 설명을 통해 그곳이 인간세상보다 훨씬 화려한 곳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임에도 불구하고 천지 일월이 세상과 같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아귀가 사는 세상은 해와 달이 존재하는 인간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음으로 용궁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용궁에 다다랐다. 해와 달이 명랑하고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궁궐은 구름 낀 하늘에 넓고도 끝이 없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인간 세상의 다섯 가지 복을 응하였으니 연못 속의 천지요 물 나라의 용궁이었다.²⁸⁾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용궁에 대한 설명은 매우 소략하지만 앞에서 살핀 아귀의 굴혈 모습처럼 인간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곧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구름이 끼며, 연못이 있다는 점에서 지상의 풍경을 보는 듯하다. 이 작품에서는 지상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궁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궁궐의 모습도 지상의 화려한 궁궐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용궁의 모습도 아귀가 사는 지하세계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모험의 특징

<김원전>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모험은 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지하세계의 탐험과 아귀와의 대결이었다. 그의 모험은 굴속으

28) 박용식(역주), 『금방울진/김원전/남윤진/당대중전/이화진/최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45쪽.

로 내려가서 공주를 구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가 철마산에서 무예를 익히던 중 아귀를 만나 대결하고, 그의 뒤를 쫓아가서 그가 들어간 구멍을 본 일이 있었다. 그곳을 찾아간 김원은 500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칩으로 큰 동우리를 만들고 네 귀에 줄을 달아 내려서 그 굴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자금일월용봉 투구와 황사자 보신갑, 오척 보검, 천서 세 권을 얻는다. 이것은 그의 모험을 돕는 하늘의 뜻이 반영된 기묘한 물건들이었다. 또한 홍미선이라는 기이한 부채까지 얻는다. 뿐만 아니라 지하세계에 들어가서는 아귀에게 잡혀간 공주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곧 그는 작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공주의 도움으로 아귀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 또한 공주가 독한 술로 아귀를 잠들게 하고 가져온 아귀의 칼로 아귀의 머리를 베고 여러 여자가 일시에 재를 뿌려 아귀를 죽인다. 이어서 소아귀들이 달려들자 맞아 100여 합을 싸우다가 산호채찍을 들어서 소아귀의 무리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을 모두 죽인다.

<김원전>에서 대적자 아귀가 매우 용맹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원과 아귀의 대결은 매우 간단하게 주인공의 승리로 마무리됨으로써 두 인물의 대결이 주는 흥미는 매우 약화되어 있다. 곧 김원과 아귀는 둘 다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둘의 대결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이런 독자들의 기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귀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김원이 휘두른 자신의 칼에 맞아 힘없이 죽는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김원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아귀의 능력도 김원에 못지 않았다. 아귀는 머리가 아홉이었고, 각각의 머리가 그 나름의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해 용왕을 임의로 부리고, 옥황상제도 그를 마음대로 휘어잡지 못할 존재였다. 따라서 독자에게 이 둘의 대결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작자는 둘의 대결을 김원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시킴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그의 모험에 등장하는 이계의 모습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간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인간세계보다 좀더 화려하고, 보배가 많은 곳으로 설명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런 정도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대목으로 부하들의 배신 대목이 있다. 곧 그의 공을 시기한 부장 강문추의 배반으로 김원은 지하에 갇힌다. 이 사건은 김원이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독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그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용궁 탐험과 관련된 사건으로 전환시켰다. 곧 지하에 갇힌 김원은 산천을 구경하다가 높은 나무에 매달린 용왕의 아들을 구해주고, 그를 따라 용궁으로 간다. 그러나 용궁의 모습이 인간세상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어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지금까지 살핀 점들을 고려할 때 김원의 모험은 이계에서 대적자와 대결하여 공주와 용자를 구출했다는 공훈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대결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해서 독자의 흥미를 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김원전>에는 김원의 죽음과 재생이라는 사건이 설정되어 있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다. 그런데 이것은 용녀와의 결연이 가져온 부수적 사건이어서 작품의 구성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김원의 모험은 독자의 흥미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인공과 대적자의 대결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김원이 탐험한 이계의 모습이 인간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도 아니어서 독자의 흥미를 고조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김원의 모험은 독자의 흥미 고취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김원전에 등장하는 모험의 결과가 앞에서 살핀 세 작품들의 모험의 결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원의 모험에 대한 보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이 탐험한 이계가 지하세계와 용궁이라는 점에서

앞의 작품의 이계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김원전에서 묘사된 이계의 모습이 현실세계와 크게 변별될 정도의 세상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김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현실에서의 부귀영화라는 점에서 앞의 세 작품과 구별된다. 곧 김원의 모험 후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현세에서의 부귀영화는 조선 후기 소설에서 보편화되는 독자들의 행복한 결말에 대한 욕구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원의 모험에 대한 현세적 부귀영화라는 보상은 조선 후기 소설의 상품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한국문학에서 모험은 매우 오래된 문학의 소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가 <오구풀이>나 <지하국 대적 제치 설화> 같은 작품뿐만 아니라 <최치원 설화> 같은 매우 오래된 작품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신이담 형식의 설화들 가운데 몇 작품이 조선시대에 와서 소설화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물론 개별 작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험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통시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현대문학이나 대중문학 작품 가운데 모험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험이라는 소재가 문학 작품에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국문학을 관류하는 모험서사의 통시적 고찰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특히 대중문학에서 모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문학에 등장하는 모험 서사의 체계적 논의야말로 한국문학 연구에서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로 한국의 고전문학에 나타난 모험을 살펴보는 것에 만족하

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는 것으로 필자의 발표를 마치려고 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오구풀이>나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김원전>을 관류하는 주인공의 모험은 이계의 탐험과 대적자와의 대결로 요약된다. 그런데 주인공의 모험의 결말은 대체로 행복한 결말의 추구였다. 예를 들어 바리데기는 무조신이 되고, 박생은 염왕이 되며, 한생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산으로 은둔하고, 김원은 공주와 용녀와 혼인하고 형주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백일승천한다.

그런데 <오구풀이>와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의 결말과 <김원전>의 결말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곧 앞의 세 작품의 결말은 현세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복의 추구가 아니었다. 곧 이들은 현세의 부귀영화보다는 이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모험을 통해 인생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원전>의 결말은 현세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한국문학에 등장하는 모험이라는 소재도 행복한 결말이라는 한국문학의 관습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 서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작품과 대중화 이후의 작품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문학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독자들의 욕구를 모험 서사가 어떻게 수용했느냐에 따른 결과의 차이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재호, 『금오신화』, 과학사, 1980.

박용식(역주), 『금방울전/김원전/남윤전, 당태종전, 이화전/최량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2. 논문과 단행본

김열규, 『한국민속과문학연구』, 일조각, 1975.

Cawelti John,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The University of Chocago Press, 1976.

저자미상, “Adventure Literature”

Abstract

Adventure Tale in Korean Literature

Im, Song-Lai

Adventure tale is one of the oldest literary genres in Korean Literature. There are some works, for example, shamanistic song <Ogupuli>, <Tale of the conquest of Great Enemy in Underworld>, and <Tale of Choi-chi-won>. Some works of this genre later are transformed into the narrative form of novel in Chosun-Dynasty.

In these adventures tales, their heroes led their adventures to both the exploration of other world and the confrontation of the Great Enemy. The ending of the adventure tale describes the joy and consolation of the closed - and often happy resolution of every successful adventure. For Example, "Baridegi" turns to Shamanic God, "Mr.Park" to King of Underworld, "Mr.Han" to a hermit into the mountain, abandoning both the rich and the glory. "Kim-won" to Lord of Hyungju, marrying Princess and "daughter of Dragon," living happily and flying into heaven on his death.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the popularization of adventure narrative depends upon how the genre of adventure tale is capable of satisfying the reader's desire. (Key Words : Adventure, Journey to Other World, Ogupuli, Tale of Namyombuju, Tale of Yonggung, Tale of Kim-won)

▣ 위 논문은 2010년 05월 04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0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